

LA 필하모닉 인사이트 Insight 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그리고 양혜규의 특별 협업 프로그램 《엇갈린 랑데부》

작곡가 **윤이상의 생애와 작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양혜규 작가의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개인전 및
LA 필하모닉의 「이중 협주곡」 공연

윤이상의 작업 세계와 유산에 미술가와 음악가가 보내는 헌사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하 'LA 필하모닉')과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이하 'MOCA')이 현대미술가 양혜규의 개인전 《양혜규: 엇갈린 랑데부(Haegue Yang: Star-Crossed Rendezvous)》의 특별 협업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오는 3 월 10 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엇갈린 랑데부》는 양혜규 작가를 주축으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그랜드 애비뉴 문화지구(Grand Avenue Cultural District)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협업으로 성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곡가 고(故) 윤이상(Isang Yun, 1917-1995)의 오보에, 하프 및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 협주곡(Double Concerto)」(1977)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참여 관람객은 이 날 하루 동안 이 곡을 각기 다른 장소와 맥락에서 두 차례 조우하게 된다. 우선, **오후 5 시부터 8 시까지** 'MOCA 그랜드 애비뉴(MOCA Grand Avenue)'에서는 양혜규의 대규모 블라인드 설치작인 <윤에 따른 엇갈린 랑데부(Star-Crossed Rendezvous after Yun)>(2024)를 포함한 양혜규의 개인전을 관람할 수 있다.

이후 관람객들은 그랜드 애비뉴(Grand Avenue)를 가로질러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로 이동, 양혜규 작가 작업의 핵심적인 모티브인 윤이상의 음악을 경험하게 된다. 저녁 8 시부터 시작되는 연주회는 한국계 캐나다인 지휘자 **이얼(Earl Lee)**의 지휘 아래 'LA 필하모닉 뉴 뮤직 그룹(LA Phil New Music Group)'이 「이중 협주곡」을 연주하며, LA 필하모닉 수석 오보이스트 **라이언 로버츠(Ryan Roberts)**와 수석 하피스트 **엠마누엘 세이송(Emmanuel Ceysson)**이 협연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LA 필하모닉의 2025/26 년도 '바디 앤 사운드 페스티벌(Body and Sound Festival)'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을 가로지르는 몰입적인 시청각 여정을 제공함으로써 감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과 시각 예술은 각 기관의 고유한 건축적 공간을 무대 삼아 서로 교차하며 총체적인 경험을 제시한다.

LA 필하모닉과 MOCA 간의 이러한 협업은 지난 2025 년 11 월 22 일 두 기관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 《엇갈린 랑데부: 윤이상의 음악적 유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명한 음악학자, 역사학자, 작곡가 및 연주자들이 모여 전일에 걸쳐 진행된 본 심포지엄은 윤이상의 생애와 음악적 유산, 그리고 현대음악사 맥락 안에서 그의 중요한 업적을 탐구하는 자리였다. 심포지엄의 진행은 UCLA 음악학 교수 조이

칼리코(Joy Calico)가 맡았으며, 음악학자 라이언 도허니(Ryan Dohoney), 미나 리(Mina Lee) 및 앤 C. 슈레플러(Anne C. Shreffler), 작곡가 김택수(Texu Kim)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또한 콜번 스쿨(Colburn School)의 학생들이 윤이상의 실내악 및 독주곡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진 한편, 지난 10 여년간 양혜규 작가가 몰두해온 윤이상에 대한 심도 깊은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도허니와 미나 리의 기조발표도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하여 LA 필하모닉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김 놀테미(Kim Noltemy)**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그랜드 애비뉴 문화지구의 이웃이자 동시대 현대미술의 비전을 널리 공유해온 MOCA와 함께 윤이상의 업적과 양혜규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어 영광이다. LA 필하모닉의 ‘바디 앤 사운드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이번 협업은 음악을 콘서트 홀이라는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전시장이라는 맥락까지 확장해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MOCA의 모리스 마르시아노 임시 관장인 **앤 골드스타인(Ann Goldstein)**은 이렇게 밝혔다. “LA 필하모닉과의 협업은 다학제간 교류와 다양한 기관, 분야 및 관객을 관통하는 경험을 창출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양혜규의 설치작과 윤이상의 음악간 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관객이 그랜드 애비뉴를 가로질러 예술과 음악을 상호 연결된 형태로 마주하게 하고, 또 이를 통해 역사와 이주, 그리고 공동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MOCA의 수석 큐레이터이자 큐레토리얼 총괄 디렉터인인 **클라라 김(Clara Kim)**은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삶과 작업을 이어온, 디아스포라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명의 비범한 인물을 한 자리에 소환한다. 이들의 예술과 음악은 잊힌 역사를 다시 일깨우는 예술적 표현의 힘, 그리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작업을 로스앤젤레스의 관객에게 선보이게 되어 감격스럽다”라고 전했다.

전시《양혜규: 엇갈린 랑데부(Haegue Yang: Star-Crossed Rendezvous)》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폴라 크롤(Paula Kroll)**과 **클라라 김**이 함께 기획하였다.

LA 필하모닉 인사이트는 린다 및 데이비드 샤희 부부가, MOCA 전시는 힐렌버그 일가가 후원하였다.

프로그램

엇갈린 랑데부(Star-Crossed Rendezvous)

2026년 3월 10일(화)

MOCA Grand Avenue: 오후 5~8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오후 8시

양혜규, 조명 서곡(light choreography)

LA 필하모닉 뉴 뮤직 그룹(LA Phil New Music Group)

이얼(Earl Lee), 지휘자

라이언 로버츠(Ryan Roberts), 오보에

엠마누엘 세이송(Emmanuel Ceysson), 하프

공연 티켓

2025/26 시즌 티켓은 LA 필하모닉 공식 홈페이지(laphil.com)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전화(+1-323-850-2000)로 예매할 수 있다. 본 행사는 RSVP 시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

《양혜규: 엇갈린 랑데부(Haegue Yang: Star-Crossed Rendezvous)》

MOCA 그랜드 애비뉴(MOCA Grand Avenue)

250 S. Grand Avenue, Los Angeles, CA 90012

2026년 2월 24일(화)~8월 2일(일)

입장: 무료

독자적인 추상 언어로 잘 알려진 양혜규 작가(1971년 서울 출생, 서울과 베를린 거주)는 폭넓은 매체와 소재를 망라하여 활발히 작업해왔다. 양혜규는 그중 빛을 조절하고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생산된 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s)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슬랫을 갖춘 이 산업용품은 2000년대 중반 이래로 양혜규의 대규모 설치작업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언어를 초월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 본연의 힘을 빌어 양혜규는 색상, 빛, 소리의 다감각적 경험을 통해 활성화되는 공간을 표현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배양된 추상(incubated abstra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역사적 내러티브와 인물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는 작품을 잉태하는 역할을 한다.

MOCA에서 열리는 양혜규 작가의 이번 전시는 약 1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구현된 두 점의 주요 블라인드 설치작업을 함께 소개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현저히 상이한 두 작품의 병치는 ‘비대칭성(asymmetry)’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이 한 쌍의 작품은 카타르시스적 해소를 지양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를 시각화하는데 주력하며, 완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전체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상이한 방식으로 병렬 배치된 두 설치작은 양혜규의 작업에서 반복되는 모티프 중 하나인 ‘이중화(doubling)’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각시킨다.

전시작 중 하나인 <솔 르윗 뒤집기 - 1078 배로 확장•복제하여 다시 돌려 놓은 K123456(Sol LeWitt Upside Down - K123456, Expanded 1078 Times, Doubled and Mirrored)> (2015)은 미국의 미니멀리스트이자 현대미술의 거장인 솔 르윗(Sol LeWitt, 1928-2007)의 상징적인 정육면체 구조물을 참조한다. 작가는 솔 르윗의 전면이 열린 정육면체를 백색 블라인드가 뺄뺄하게 중첩된 밀도 높은 구성으로 변모시킨다. 또한 <윤에 따른 엇갈린 랑데부(Star-Crossed Rendezvous after Yun)>(2024)는 작가가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낸 선구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생애와 작품에 보내는 헌사이다. 윤이상의 「이중 협주곡(Double Concerto)」에 맞춰 두 개의 조명이 기하학적 구조물 사이를 부유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은유를 암시한다.

LA 필하모닉 소개

음악 및 예술 감독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 이끄는 LA 필하모닉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물론 그 너머의 공동체 문화를 고무하고 강화하는 실황 공연, 미디어 프로젝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LA 필하모닉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데,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다학제적인 공연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유스 오케스트라(Youth Orchestra Los Angeles)’와 같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LA 필하모닉의 공연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할리우드 보울(Hollywood Bowl) 및 포드 극장(The Ford)을 포함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역사적인 무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LA 필하모닉은 오늘날의 세계에 울림을 주는 음악, 예술 및 교육 경험을 통해 개인과 지역 사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LA 필하모닉 인사이트(Insight) 소개

LA 필하모닉 산하의 '인사이트(Insight)'는 다양한 객원 예술가와 협력 단체를 문화 친화적인 대중과 연결한다. 특히 LA 필하모닉의 공연 프로그램을 출발점으로 삼아 주제별로 다양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다. 패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토론 및 퍼포먼스 세션 뿐만 아니라 전시 및 출판물의 출간을 아우르는 인사이트의 다채로운 활동은 주로 페스티벌 및 특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소개

1979년 설립 이후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MOCA는 약 8,000여 점에 이르는 컬렉션을 구축해왔다. 미술관의 광범위한 소장품은 국제적인 다양성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성을 함께 아우른다. 또한 고유한 특성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과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담은 출판물, 동시대의 미술을 면밀히 조명하는 국제적 규모의 개인전, 순회전, 주제전 및 새로운 미디어 제작 방식과의 선도적인 협업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확장해왔다. MOCA는 비영리 기관으로, 다양한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가 소개

양혜규(b. 1971)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2017년부터 모교인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 슈테델슐레(Städelschule in Frankfurt am Main)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5년부터 베를린 쿤스트베어케(Kunst-Werke Berlin)의 의장을 맡고 있다. 양혜규는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설치, 수행적 조각, 종이 콜라주, 무대 연출 프로젝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업을 전개해왔다. 작가는 최근 시카고 아트클럽(ACC Chicago, 2024), 댈러스 내셔 조각 센터(Nasher Sculpture Center, 2025) 및 세인트루이스 현대미술관(Contemporary Art Museum St. Louis, 2025) 등 미국 내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0월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시작된 서베이 개인전 《양혜규: 윤년(Haegue Yang: Leap Year)》은 쿤스트할 로테르담(Kunsthall Rotterdam)을 거쳐 취리히 미그로스 현대미술관(Migros Museum für Gegenwartskunst)을 순회하는 대장정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뉴욕주 소재의 디아 비콘(Dia Beacon)에서 작가의 개인전 《Through》가 개최될 예정이다.

양혜규는 2018년에 쾰른 루트비히 미술관(Ludwig Museum)에서 '볼프강 한 미술상(Wolfgang Hahn Prize)'를, 2022년에는 싱가포르 비엔날레 참여작가 중 선정되는 제 13회 베네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혜규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The Guggenheim Museum), 우미니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Walker Art Center),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파리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 및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등 전 세계 유수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도 문의

Leah Price, leah.price@laphil.org

Lev Mamuya, lev.mamuya@laphil.org ✉

Danielle Bias, communications@moca.org